

사회

정년 퇴임 박행순 전남대 약대교수

해외 교육봉사로 '인생 2막'

“초등학교 시절 수바이처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제 자신과의 약속을 50년이 지나서야 지키게 됐습니다. 네팔의 의료인력을 키우는 데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팔서 의료인 양성

본보 '은펜클럽' 회원

지난 31일 정년으로 28년 정년을 갱신한 박행순 전남대 약대 박행순(65) 교수가 의료 선교사로 '인생의 2막'을 시작하기 위해 오는 5일 네팔 파탄으로 떠난다.

그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인근 파탄 의대에서 의사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생화학 분야를 가르칠 계획이다. 박 교수는 네팔 의대로부터 속속한 제과 받고 무보수로 봉사한다.

박 교수는 “네팔은 가장 기본적인 의료시설과 인력이 카트만두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 소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한다”며 “지방과 수도 도권 사람들의 평균 수명 20년 이상 차이가 난다는 소식을 듣고 네팔행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어린 시절 물모델이 수바이처 박사였다면 지금은 평생을

우리나라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한 성산 장거리 박사다”며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뒷산 바윗돌처럼 항상 서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의사가 됐다는 장거리 박사의 말처럼 제 가르침을 받은 네팔의 학생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방 소도시의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대 재직 시절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센터 센터를 이끌며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교육, 취업, 경력개발에 힘썼던 것처럼 네팔에서도 여성 기초 과학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광주일보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으로 활동해 왔던 박 교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광주와 교류를 통해 국제화 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30년 가까운 교직 생활을 통해 ‘남을 위하는 삶이 바로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박 교수는 “파탄의 또 다른 이름은 '라이트푸르(Lalitpur)'로 '미의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봉사를 통해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새 표준어 인정 단어

Table with 2 columns: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Includes terms like 택견, 품새, 짜장면, etc.

Table with 2 columns: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로 인정된 경우,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Includes terms like ~길래, 개발새발, 나래, 날개, etc.

자장면·짜장면 둘다 맛다

국립국어원, 먹거리 등 39개 단어 표준어 인정

방송인 정도만 '자장면'이라 발음하는 '짜장면'이 마침내 표준어가 됐다.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국민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 대접을 받지 못한 '짜장면'과 '먹거리'를 비롯한 39개 단어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이를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go.kr)에 반영했다고 지난 31일 말했다.

국어원은 지난 22일 국어심의회 전체 회의를 열어 새 표준어 대상을 확정했다. 국어원이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할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도 많이 쓰여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할 경우다.

그동안 '자장면' '태권' '품새'만 표준어로 인정됐지만 '짜장면' '택견' '폼새'도 표준어로 진입한 것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둘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 이를 인정해 별도 표준어로 인정할 사례로, 25가지가 있다. 일례로 '눈꼬리'는 '눈초리'로 써야 했지만 두 말은 쓰임이 달라 '눈꼬리'를 별도 표준어로 인정했다.

세번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에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할 경우다. 예컨대 '간지갑하다'는 비표준어로서 이에 해당하는 말로는 '간질이다'로 써야 했으나 둘 다 인정됐다. /연필뉴스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ection including a map of Korea, temperature forecasts for various cities, and a detailed weather forecast for Jeonju.

수시 지원 횟수 제한 없애 선택권 부여

대교협, 2013년대입 기본사항 수시 추가 합격자도 정시지원 할 수 없다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를 201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수시 합격자의 '도미노 이탈'을 막기 위해 최초 합격자는 물론 미등록 총원으로 합격한 수험생의 정시 지원도 금지된다. 수시의 경우 지원횟수를 5회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됐지만 수험생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 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안에서 빠졌다. 수능시험은 2012년 11월8일 실시하며 개인별 성적은 11월28일 통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는 대학총장, 사·도 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지난 31일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시 합격자의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을 금지한다는 점이다. 최초 합격자와 미등록 총원 기간에 합격한 학생이 모두 포함된다. 이전에는 미등록 결원으로 추가 합격한 수험생들은 입학에 포기하고 정시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번 결정은 수시 합격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시 지원을 금지해야 수험생의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판단에 따

른 조치다.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대입이 무리된 후 전산자료 검색 등을 통해 철저하게 확인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무효로 한다.

또 대학별고사 실시 대학은 원서접수일 이전에 시험시간을 명확히 공지하도록 해 수험생에 대한 편의 제공을 강화했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접수 시작 일정을 이전(2012학년도)의 경우 2011년 8월1일)보다 15일 늦춰 2012년 8월16일부터 시작한다. 2013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홈페이지(www.kcu.ed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순천 외국인학교 내년 9월 개교

도교육청, 초중고생 1000명 규모 최종 인가

전남지역 최초의 외국인 학교가 내년 9월 순천에 선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공교육 황폐화를 우려, 당초 신청한 정원 규모는 크게 축소됐다.

지난 3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 1000명 규모의 외국인 학교 설립 신청이 최종 인가돼 이르면 내년 9월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는 중국계 캐나다인 서면 전 이사장의 '메이플림 교육재단'이 620여원을 들여 건립·운영할 계획이며, 애초 신청 규모는 유치원(500명)을 포함한 2000명이다.

인가 승인이 나면 이 학교는 우선 내년 9월 중학교 2, 3학년(150명)과

고등학교 1학년(75명)을 모집한다. 최종 정원은 초등학교 학년당 24명씩 144명, 중학교 300명, 고등학교 556명 등 1000명이다.

하지만 국내 40여개 외국인 학교가 정원 채우기에 급급, 내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무너진 외국인 학교'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설립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입학 자격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정원의 30%까지)이다.

영어로 수업이 이뤄지며 국어와 사회 교과를 120시간 이수하면 국내대학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원인미상 폐질환, 가슴기 살균제 때문”

질병관리본부 원인 추정

출산 전후의 산모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갔던 원인미상의 폐질환이 가슴기 살균제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5월 출산 전후의 산모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원인미상의 폐 손상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슴기 살균제(또는 세제계)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원인불명 폐 손상 환자가 몰려든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같은 증세로 입원한 적이 있는 18명을 환자군으로, 같은 병원의 호흡기내과와 알레르기내과에 입원한 적이 있는 121명을 비환자군(대조군)으로 설정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파악했다.

그 결과 환자군 가운데 가슴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우와 대조군에서 살균제를 사용한 비율의 차이인 교차비가 47.3으로 나왔다. 이는 가슴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우 원인불명 폐 손상 발생 위험도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해 47.3배 높다는 의미다.

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전자담배 접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는 주제의 특별 좌담회에서 가톨릭 의대 맹광호 명예교수는 “전자담배의 주된 물질은 니코틴으로 일반담배보다 니코틴 함유량이 2~3배나 많다”며 “특히 국내 시판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함유량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동일 레벨 제품이라도 니코틴 함유량이 최대 20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연필뉴스

전자담배 니코틴 과다

청소년 흡연중독 유발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과다하게 들어 있어 건강을 해치고 흡연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1일 경기도 수원청소년문화

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전자담배 접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는 주제의 특별 좌담회에서 가톨릭 의대 맹광호 명예교수는 “전자담배의 주된 물질은 니코틴으로 일반담배보다 니코틴 함유량이 2~3배나 많다”며 “특히 국내 시판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함유량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동일 레벨 제품이라도 니코틴 함유량이 최대 20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연필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공황장애' (Panic Disorder) treatment us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 (한방). Includes a list of symptoms, a list of 12 sign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Kyunghee Han's clinic.